



회 고 록

녹색병원의 꿈

양길승 _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1. 들어가며

녹색병원은 2003년 9월, 면목동에서 원진재단 부설 녹색병원이란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보다 4년 전인 1999년 6월에 같은 재단에서 구리에 원진녹색병원이란 이름으로 병원을 시작하였지만, 그때는 규모가 작은 병원이었고 종합병원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든 것은 녹색병원이 처음입니다. 녹색병원이 해야만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기능,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찾고 만들어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같이 한 사람의 하나로서 녹색병원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병원은 노동자 건강을 지키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시작되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에 이어 78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동운동이 구로에서 거제까지 전국에서 용솟음칠 때 그해 10월 노동자 건강을 위한 워크숍이 서강대에서 1박 2일로 네 차례 열렸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노동과 건강연구회 창립준비 위원회입니다. 6월 항쟁의 과정과 결과물로 만들어진 부문별, 전문분야별 조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길고 긴 투쟁의 산물이 바로 원진직업병관리 재단이자 녹색병원입니다.

이 글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런 꿈에 가까이 가게 되었나를 저의 기억을 바탕으로 쓴 생각과 기록입니다. 제가 함께 했던 여러 활동은 저 혼자 한 일이 아니고 함께 한 사람들과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이 여러 곳에서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사양하고 피했으며, 개인적으로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평가하고 기록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 더 객관적으로 쓰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의학연구회 역사(『한국보건의로운동의 궤적과 사회의학연구회』, 한울출판사 2016년 발간), 노동과 건강연구회와 그 뒤를 이은 노동건강연대의 역사(『노동과건강연구회 10년사』, 노동과 건강연구회 1998년 발행 『노건연과 노건연』, 노동건강연대 2008년 발행),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30년사(『광장에 선 의사들』, 이데아 2017년 발간), 『홍사단 서울대 아카데미 50년사』(2020년 발간 예정) 등 어느 곳에도 특별히 기고하거나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시대의 과제를 같이 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해 보라는 요청을 받은 후, 제가 그런 역사적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간의 활동과 경험을 개괄적으로 적어 봅니다. 제가 구부러진 길을 길게 돌아온 것이 남들과는 다른 경험이 되어, 같이 걸어오면서도 조금은 다른 꿈을 꾸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2015년 12년간의 녹색병원 원장직을 사임하고 2대 김봉구 원장에 이어 3대 임상혁 원장이 2019년 취임하여 녹색병원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새로운 역할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보려 합니다.

2. 길고 길었던 학생 시절

누군가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인생연표를 정리해서 보이는 것이 좋다고 하여 짧게 쓸 수 있는 부분은 년표로 써 봅니다

- 양길승의 살아온 길 -

1949년 전라남도 나주에서 5남 5녀의 막내로 태어남. 집에서 옛 공장과 고물상을 하셨음.

1967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수학과 입학/중퇴, 고향에서 농사지음.

1969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의예과 입학.

홍사단 서울대 아카데미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의예과 학우들과 사회과학 공부하는 잔디회를 만들어 활동함.

문리대에서 학생운동에 참여하며 사회현실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배웠음.

1971년 서울의대 의학과로 진학.

서울의대 사회의학연구회(사의연)에서 활동. 여름방학 때 서울의대 의료봉사활동을 처음으로 농촌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실행함.

10월 15일 위수령이 선포되었을 때 “조 대학(弔大學)” 유인물을 만들어 서울의대에 뿌려 수배되어 경찰에 체포되어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았음.

1972년 여름방학 동안 사의연에서 송정동 판자촌민 실태조사를 하여 “판자촌민 연구” 보고서를 발간. 학생들이 만든 최초 빈민 조사보고서.

1973년 홍사단의 학생조직 아카데미 운동 10년을 맞아 백서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보고서 “홍사단이념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집필, 홍사단 잡지 기러기 6월호에 게재.

서울의대 여름 의료봉사를 본격적인 농활로 진행. 가을에 휴교로 강제로 귀향당함.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 2호 발표.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 금지와 이를 위반하면 군사 재판에서 처벌.

1월 21일 개학과 동시 의학과 3학년들이 시험을 보는 것을 기회로 시험거부를 결의하고 긴급조치 반대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긴급조치 발효 이후 최초의 반대 운동을 함께 하여 수배당하고 도피를 시작함. 체포된 학우 이근후 김구상 김영선은 군사재판에서 각기 10년형을 선고받음.

4월 3일 민청학련시위를 서울의대에서 황승주 등이 실행하고 고난을 겪음. 황승주는 손가락 한 마디를 끊어 혈서를 써서 저에게 맡기고 자수하였음.

저는 계속 도피생활을 하면서 아카데미 후배들의 학습을 지도하였는데 1975년 9월, 김지하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밝힌 “양심선언”을 얻어 같이 공부하던 서울대(조성두, 송영인) 고려대(김태일) 이화여대(이정숙, 김영인) 학생들과 함께 대량 등사하여 3개 대학에 뿌렸습니다. 후배 학생들 5명은 잡혀서 구속되었으나 저는 도피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결국 1975년 12월, 도망 다닌 지 1년 10개월 만에 여수 동산동 천주교성당에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저를 잡은 사람들은 보안사 사람들이었고, 소위 서울 의대 간첩단 사건의 관련자로 체포한 것이었습니다. 제 형과 누나 두 분이 보안사에 끌려와서 제가 잡힌 이후에야 풀려나셨다는 것을 40년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안사에서 33일, 다시 중앙정보부로 넘겨져서 30일, 총 63일을 조사받은 후 구속영장을 받아 경찰서로 옮겨지고 나서야 가족들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죄명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긴급조치 9호 위반(그때는 이미 긴급조치 1, 2호는 해제되어 군사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등과 간첩 불고지죄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 구형 10년을 받았지만, 선고에서 간첩 불고지죄는 무죄가 되었고 (당시 간첩이라 지목된 재일교포 유학생 강종현은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몰랐었는데 그분도 40년 뒤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아 대법원에서 석방 결정을 받고 1년 만인 1976년 12월 22일에 출소하였습니다.

출소 후에는 출판사 판매직과 연구소(공익문제연구원)에 근무하다가 이대 앞에서 1978년부터 다락방서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되는 10월 26일을 맞아 1980년 3월 서울의대 3학년으

로 복학하였습니다. 서울의 봄을 맞아 다락방서점을 양도하고 학교로 돌아갔는데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이 터지면서 다시 서울의대 시위의 배후라고 수배가 되고 서울의대로부터는 두 번째 제명을 당했습니다. 1년이 지나 수배가 해제되어 집으로 돌아왔으나 복학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1982년, 많은 분의 도움으로 처 이해경이 독일 기독교재단으로부터 장학생으로 초청을 받아 유학을 가게 되어 동반자 자격으로 출국하려 하였으나 여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 분을 찾아 일면식도 없는 분들을 찾아가서 부탁드립니다 기도 몇 차례 하였지만,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전과자는 출국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처갓집에서 방 하나를 얻어 살고 있을 때였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여 받았더니 처음 듣는 목소리의 여성이 저임을 확인하고 “김수환 추기경님 전합니다”라고 하며 전화를 바꿔 주었습니다. “아, 난데 내가 보증 서주면 여권 내 주기로 했어. 내가 내일 로마로 나가야 하니 신원보증서 가지고 와서 내 도장 받아가” 하시고 바로 끊어 버리셨습니다. 전화도청이 일상이었던 때여서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할까 봐 그러셨던 것 같았습니다. 얼떨떨함에서 벗어나 감을 잡고 저를 담당하는 중앙정보부 직원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중앙정보부 직원이 찾아오면 그 직원에게 그동안 뭐 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하는, 소위 동향 보고를 하던 때입니다. 제 담당은 전화를 받더니 모르는 이야기라고 끊고 한참 후에 찾아와 신원보증서 용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수환 추기경님의 얼굴도 뵈지 못한 채 보증서에 도장을 받고 또 더

받아오라는 추가 보증인까지 받아 1982년 12월 독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때 받은 여권은 단수에 기한은 1년, 붉은 스탬프로 ‘기재사항 변경 금지’라고 찍혀있어 여권발급 직원이 “이런 여권인데 받겠느냐?”고 물었던 여권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정은 이렇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 노신영이 옥중에 있던 김대중님을 미국으로 출국시키려는 과정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을 면담하는 자리가 있었답니다. 그때 함께 가셨던 윤공희 대주교님이 즉석에서 “내가 감옥에 다녀온 의대생을 해외로 나가게 해달라고 보낸 탄원서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고, 현홍주 정보부 차장 서랍에 묶여있다는 보고를 했답니다. 이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나도 그 학생 잘 아는데, 도와 달라”고 말을 거들어 추기경에게 청탁을 해야 하는 중앙정보부장이 그 자리에서 승낙을 해서 연락을 하게 되신 거랍니다. 그다음 해 추기경님이 독일에 오셨을 때 처음 추기경님을 뵈었습니다. 윤공희 대주교님이 탄원서를 쓰신 것은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체포될 당시 숨어 있었던 성당의 주임신부 김충호님이 마침 그때 윤공희 대주교님의 비서 신분으로 계셔서 부탁드려 써 주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1983년 아일랜드 골웨이에 있는 150년 역사를 가진 의과대학에서 그 대학 역사상 처음으로 의대 편입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0년 전 서울의대 학점을 인정받아 2학년 말 학기로 편입되어 2년 반 만에 졸업을 하고 그곳 의사면허를 땀습니다. 1985년 12월 귀국해서 1986년 1월 한국의사면허시험을 통과해 19년에 걸친 대학생활을 드디어 마쳤습니다.

3. 보건 의료운동과 노동자 건강 운동과 시민운동

의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하는 것은 경주에서 시작하였습니다. 6개월 뒤 서울로 올라와 구로구 가리봉동 5거리에 우리의원을 개원하였고 3년간의 해외 생활 동안 변화한 한국의 현실을 배우고 활동 공백을 메워왔습니다. 아일랜드의 의료제도가 영국식의 국가보장제도였기 때문에 처음으로 배우고 경험하게 되었던 의료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제도와 많이 달랐습니다. 아일랜드는 모든 사람이 주치의료를 정해 1차 진료를 받는 주치의제도가 있고 모든 의료는 공공의료이며 나라가 모든 의료를 보장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에 공공의료가 10%도 안 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료기관이 절대다수이면서 보험 가입자에게만 의료비를 분담해 주는 의료보험제도가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점이 너무 명확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은 그 제도와 관행이 익숙하여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착한 의료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우리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많은 변화가 긴 세월 동안 있어야만 합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동력이 만들어져야 하고, 또 그러려면 군사독재를 벗어나 사회가 민주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같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결집하는 것입니다.

제가 떠나 있던 동안 흥사단 아카데미는 다른 학생운동조직처럼 학생운동에서 노동운동으로 전환하여 활동하고 있었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

은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으로, 직장생활에서 직업인으로 자리 잡아 운동의 후원자가 되어있었습니다. 의료직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빈민이나 노동자들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돕기 위해 판자촌 진료와 산업 선교와 연계하여 진료활동을 이어오며 노동자 진료기관을 만들거나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결과물이 1985년 3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사당의원의 설립(원장 김록호), 1986년 3월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에 구로의원(원장 김기탁)과 1986년 4월 경기도 시흥군에 신천연합병원(양요환, 안용태, 고경심)으로 이어져 갔는데, 저도 1986년 8월 우리의원 개원을 통해 합류하였습니다.

우리의원은 구로공단 5거리에 있어 대부분의 환자가 노동자였고 일부는 노동 현장에 들어온 학생운동 출신자였습니다. 노동자를 진료하면서 겪은 경험이 저를 노동자 건강문제를 다루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진료는 외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늘 환자의 증상을 듣고 나서 진찰을 시작합니다. 진찰은 “손 좀 주십시오”하고 두 손을 잡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뜻밖에도 손을 안 내놓으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억지로 손을 잡아보면 손가락이 몇 개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도 여러번 계속되는 일이라 통계를 내 봤더니 오신 환자 중 10분의 1이 넘었습니다. 가리봉동 인근 독산동에 있는 프레스 공장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분들이었습니다. 프레스 기계는 손가락이 끼일 것 같으면 작동이 멈추는 안전장치가 있어 다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속도가 느려진다는 이유로 떼어내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바로 다쳐서 오신 분들을 본 것이 아닌데도 너무 많은 사람이

계속 그런 상태로 오고 있어 통계를 찾아보고 경악했습니다. 노동부 통계에는 1986년에 사망 1,660명 부상 138,791명으로 재해율이 산재보험 가입 노동자 475만 명의 2.99%였습니다. 황석영의 소설 『돼지꿈』에는 노동자가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고 환자로 치료받고 (손가락을 다시 접합하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맡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보상금이라고 돈을 주는 데, 이를 가족들이 필요한 데 쓸 돈이 들어왔다면서 돼지꿈 끈 덕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몇 년 뒤 '노동과 건강연구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노동조합이 있는 공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데도 산업재해를 명백하게 불법이고 피해 노동자가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공상(公傷)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전체 산재사고의 90%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재사고가 대부분 은폐되어 실제 재해율은 보고된 것의 10배나 되어 산재 왕국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이 사실이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노동조합이 전혀 없으며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었으니, 1986년 이러한 노동 현장의 실태를 알고 나서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변화는 박종철의 죽음과 고문치사 폭로에서 6월 민주항쟁으로 왔습니다.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간선으로 뽑는 것을 개헌으로 바꾸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민주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자각이 대학생과 운동권을 넘어 일반 직장인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넥타이부대'와 노동자가 함께하는 운동이 되었고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름을 밝히며 호헌철폐 서명운동

에 나선 것이 6월 민주항쟁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6월 민주항쟁의 승리는 노동자 789 대투쟁으로 이어졌고 전문직종의 민주화운동 조직이 잇달아 설립되어 1987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청년치과의사회와 연세민주치과의사회의 통합)(건치), 참된 의료 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청한)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등 여러 단체가 창립되었습니다.

저는 서울 성동구로 옮겨 성수의원을 개원하였고 6월 항쟁에는 매일 거리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그때는 거리에 사람들이 모이면 민주화운동을 하는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구호를 연호하면서 시위대오가 갖춰졌고, 그 즉시 경찰과 전담 체포조인 백골단이 습격하여 최루탄을 쏘며 몽둥이로 강제진압을 하여 말 그대로 쫓고 쫓기는 전투상황이 거리마다 벌어졌습니다. 저는 후배 기자의 도움으로 프레스 완장을 얻어 차고 격전지라고 알려주는 곳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역사가 다가오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제가 해외로 떠나기 전 1980년대 초, 학내에서 시위를 하려고 해도 순식간에 제압당해 구호를 제대로 외치고 잡혀가기 위해 공중에 매달리는 등등 별의별 수단을 써야 했던 때와는 달리 경찰이 휩쓸면 밀리기도 했지만, 곧 다시 대오를 만들어나갔습니다. 지라도 쫓겨 내려간 사람들도 도망가 버리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면서 다시 또 시위하러 나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군부독재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남아 있었지만 명동성당을 거점으로 삼아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고,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며 호헌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집단적으로 발표할 만큼 독재에 대한 공포를 세상은 어느 정도 이겨내었습

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은 많은 사람의 끈기 있고 지속적인 투쟁으로, 일반인들의 대중투쟁으로 요구를 성취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승리가 이루어 낸 결과이자 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노동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조직결과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부문별, 전문직종별 조직으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창립(1987년 11월)에 함께하여 기획국장을 맡았고 노동자 건강문제를 다룰 노동과 건강연구회의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아 1988년 3월 창립하였습니다. 두 단체의 일은 보건의료운동으로서 연대하여 함께 하는 일과 일반사회와 노동자 문제로 나누어지면 각기 따로 하기도 하면서 1987년 이후의 부문 운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로 시작하는 민주화운동은 시민들이 민주사회에 바라는 희망과 요구가 용솨음쳐 각 부문과 분야에서 민주화되지 않아 문제가 되어있는 상황을 접수하고, 조사하고, 연구하여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또한, 대응을 하기 위한 상담창구를 열고 조사 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사회현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독자적으로 또는 연대하여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의욕만큼 능력이 따르지 못하거나 문제를 이해하는 것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헌신적으로 일하여 그 뒤 10년간 각 부문과 분야에서 민주화운동을 그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발전시켜 시민운동과 진보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갈 수 있었습니다.

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보건의료운동단체 중 의사들의 모임인 인의협에서는 옛 학생 시절부터 뜻을 같이 해온 친구들도 있었으나 그보다는 6월 민주항쟁으로 함께 하게 된 젊은 후배들이 중심이 되어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저는 2년은 기획국장으로, 그다음 2년은 대외협력위원장으로 4년간 임원으로 함께 하였는데 그동안 인의협의 이름으로 진행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의협의 발족 선언문에서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사회참여를 하겠다고 선언하자 언론은 의사들이 의료 소외집단의 보건문제에 상담과 진료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신선하게 보도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양한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많은 격려와 요청을 받았습니다. 맨 처음 사회로부터 요구받은 것은 서울 상봉동 진폐증 환자에 관한 것입니다. 학계에서 탄광 광부들에게만 발생하는 직업병으로 알려진 탄폐증(진폐증 중 탄가루가 폐에 쌓여서 생기는 병)이 탄광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여성에서 어렵고 어렵게 확진되자(X선 사진으로 분명히 진폐증으로 보이는데 그런 사례가 없어 확진을 못하다가 폐에 구멍을 내어 탄가루를 긁어내어 확진을 하였음) 환자가 특이체질이어서 연탄공장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계의 주장을 반박해야만 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최열 당시 총장)이 인의협과의 공동조사를 제안하여 인의협 진료부에서 진폐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을 집단검진하고 판정의 중요 자료인 흉부 CT 촬영도 하였으나 판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로 3개 대학 진폐 전문영상의학과 교수를 섭외하였습니다. 판정단을 만들어 추가로 진폐 환자

2명과 의사 진폐(X선 사진상 진폐로 판정하는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치는 사례) 3명을 진단하고 그중 탄광에 간 적이 없는 사람이 3명이어서 진폐증이 직업병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오는 공해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연탄공장이 있는 이문동에서도 추가 검진을 하였고 서울 시내 전역에서 연탄공장이 교외로 이전하고 탄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제정되었습니다. 인의협이 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신생 단체에서 권위 있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으로 전문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단체로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인의협은 1989년 4월 매향리 사격장 주민들의 건강피해 실태조사를 하여 청력뿐만이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해 있다는 역학 조사를 발표하였고 그 후 추가 역학조사로 매향리 폭격장의 폐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런 주민 피해조사는 김포공항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진행되었습니다.

시국과 관련한 요청도 꾸준히 들어 왔습니다. 1989년 봄, 부산교대 여학생이 시위 도중 진압 경찰에게 방패에 찍혀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상조사를 요청하여 회원들이 직접 내려가 조사를 하고 외상 즉 방패에 의한 가격이라는 의견서를 내었습니다. 폭력적인 공권력과 연계된 의료전문가 의견이 사회의 불신을 받게 되면서 피해자 측의 요구로 조사과정이 정당하고 정확한 것이냐는 의견조회를 통해 진상조사 참여를 요구하는 일은 그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1989년 5월의 조선대 이철규 사망 사건에는 제가 관여하지 않고 전남에 있는 인의협 회원이 관여했습니다. 인의협의 입장을 밝히고 외국 법의학 전문가를 초청하여 재

부검하려 하였으나 검찰이 허가하지 않아 진상규명에는 이르지 못해 의문사로 남고 말았습니다. 1991년 4월, 시위 중에 백골단이 휘두른 파이프에 맞아 숨진 명지대 강경대 군의 사망 사건은 대책위원회의 요청으로 제가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검찰 측 4인의 법의학자와 인의협 의사 4명이 공동으로 검안을 하였습니다. 유족 측이 부검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검이 아닌 방식으로 사인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검찰을 설득하여 검안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시신을 학생들이 보호하고 있어 검찰이 부검을 강제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검안이란 메스나 시신을 손상하는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사인을 찾는 조사방법으로 눈으로 외상을 살피고 X선 촬영과 CT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검안에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손상이 온 원인이 갈비뼈 골절에 의해 심장을 찌고 있는 막에 피가 고인 것이라는 Xtjs 사진을 증거로 사망원인을 판단하였습니다. 검찰 측 4인은 사진이 아닌 부검으로 직접증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책위가 진상조사단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장례를 치렀습니다.

강경대 검안 이후 같은 해 6월에는 시신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이 병원 응급실 벽을 부수고 시신을 탈취하여 유족 측 의사의 입회 없이 부검을 한 박창수 의문사가 있었습니다. 뒤이어 대한극장 앞 시위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성균관대 김귀정 사망 사건이 있었고 9월에는 서울대 대학원 생이 시위 현장을 지나가다 경찰이 쏜 총알에 맞아 숨진 한국원 사건, 해가 바뀌어 연세대 노수석 사망사건 등 여러 차례 의문사 사건에 제가 부검을 위해 참관하였으나 대부분 검찰의 지휘로 국과수나 법의학자가 집

도를 하고 저는 유족 측 추천 의사로 입회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일은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한 농민이 시위 뒤 사망하신 사건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그밖에 인의협은 의료전문인으로서 의료개혁과 의료보장을 위한 활동을 사회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1988년 11월 다른 의료인들과 함께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과도한 의료보험료 부담으로 고통을 겪던 농민들과 연대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인의협의 회원들은 반핵문제에도 관심이 있어 국제핵전쟁방지의사회(IPPNW) 총회가 1989년 10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을 때 참석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핵 문제와 반핵운동에 대해 설명하였고 그 후 한국에서 국제핵전쟁방지의사회의 한국지부(KPPNW)의 창립을 지원했습니다. 1990년 8월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필리핀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에도 참석하였으나 인의협 자체 활동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연대 활동으로 남았습니다. 또 지난 시기 고문의 피해자들을 제가 진료한 사례를 1988년 11월에 한양대에서 보고했으며, 1991년 11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고문에 대한 제3차 심포지움에 고문 피해자 서승과 함께 참석해 한국 피해자 사례를 발표하여 고문을 추방하기 위한 국제연대를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인의협은 성남과 상계동에 진료실을 차려 의료에서 소외되어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수해가 발생한 전남 영산포와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수해피해 주민진료를 하는 등 사회봉사 활동도 했습니다. 인의협은 한겨레신문에 국민건강 코너를 만들어 공공의료기관 활용에서 올바

른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고 잘못된 의학상식을 고치는 캠페인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MBC라디오의 5분 건강 코너를 맡아 대국민 건강교육을 1년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 노동과 건강연구회

노동과 건강연구회(노건연) 발족 이전에도 구로의원에서는 상담실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상담과 일하다가 다치고 병든 산재 환자들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상담해 왔고 노건연 발족 이후에는 함께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산재추방 운동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문송면 군의 사례는 상담실에서 일하던 김은혜, 김은희 두 분을 통해 알려져 창립한 지 얼마 안 된 노건연에서 앞장서서 맡아 나섰습니다. 여기에 보건의료 단체가 전부 힘을 모아 주고 노동운동 단체와 활동가들이 모두 모여 노동자건강문제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1988년 3월, 15살 소년이 불과 40여 일 일하고 수은중독과 유기용제 중독으로 쓰러진 것이 알려지자 그렇게 열악한 작업현장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과 진단서를 받고도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 노동부와 회사의 대응은 충격이었습니다. 대책위의 오랜 활동으로 드디어 산재로 인정되었지만 불과 이틀 뒤 소년은 목숨을 잃었고 다시는 이런 비극을 만들지 말자는 사람들이 모여 산재 노동자 장으로 치렀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세례를 받은 모든 시민사회, 종교, 전문 부문 단체가 노동단체와 함께 37개 단체가 이름을 걸고 함께 했습니다.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거

나 다치는 사람은 많았지만, 직업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1986년 1,637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소음성 난청과 진폐증이 90% 이상을 차지해 다른 직업병은 거의 없었습니다. 문송면 군이 일하던 협성제공처럼 수은 온도계와 압력계를 만드는 유일 계량기에서도 얼마 뒤에 집단중독이 보고되었습니다. 직업병이 아닐까 의심하여야 직업병을 진단할 수 있는데 직업병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회였고, 직업병을 진단해주는 의사가 없어서 진단이 안 되었을 뿐이던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문송면 군의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이황화탄소중독 문제가 알려졌습니다. 1987년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통을 받던 네 분이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어 직업병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뇌 사진을 통해 뇌가 위축되어있는 것을 증거로 들었고, 이황화탄소중독이라는 진단을 받아 산재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을 치료해도 차도가 없다고 산재 치료를 종결하였고 회사는 개개인에게 6백만 원씩을 주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를 봤습니다.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을 치료 종결한 이유는 질병 상태가 호전이 안 되면 치료를 종결하도록 되어있는 산재 환자 치료규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호전이 되지 않아도 질병 악화를 막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필요하고, 통증 등 증상을 관리하고 상태를 돌보는 것이 필요한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현대의 의료는 이제 치료(cure)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고 돌보는(care) 것을 목적으로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원진레이온 환자들은 이황화탄소의 독성으로 뇌 신경 등에 문제가 생겨 합병증이 늦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송면 사건 때 모였던 단체와 사람들로 원진레이온 직업병 대책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네 분은 성수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였고 직업병진단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업병이 의심되는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을 검진하였습니다. 이 직업병 문제는 노동자들과 시민단체의 투쟁이 계속되고 당시 야당의원이던 노무현, 박영숙, 이상수, 이해찬 등이 조사에 나서는 등 큰 사회적 의제가 되어 드디어 하였고 직업병진단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주장을 대변할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기구에서 직업병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하고, 이항화탄소중독이라고 진단받은 노동자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계속하며, 피해자들의 장애의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지불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합의사항은 30년이 넘는 지금까지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직업병과 노동자 안전과 보건문제가 붓물처럼 쏟아졌고, 노건연은 톨루엔중독, 수은중독, 납중독 등 중독사건 대책 활동을 노동단체와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1989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가 전노협 건설 이전의 조직이던 노동조합 전국회의와 함께 만들어져 공청회를 열어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위한 3대 권리, 즉 ‘알 권리(정보청구권), 참여할 권리(의사결정참여권), 거부할 권리(위협작업거부권)’를 요구하였습니다. 12월 개정안은 통과되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았고 그것이 다시 개정된 것은 30년이 지나고 김용균의 희생이 있고 난 뒤입니다.

노건연은 노동 현장의 안전 보건문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자동차, 조선, 전자업체 등 유해요인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지역 순회 교육과 공동교육 등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노동자를 위한 독립적인 산업보건종합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3년 9월 한국노동보건직업병연구소를 개소하여 활동했습니다. 연대 활동으로 지방의 산재추방단체와의 교류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일본, 홍콩, 대만의 산재 피해자 단체와도 교류를 했고,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의 노동 보건안전 활동을 소개하는 국제연대 활동도 했습니다.

3) 원진 직업병 투쟁과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증 환자는 1988년에 20명을 넘었고 그 후 직업병 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면서 1990년까지 직업병 판정받은 노동자는 69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직업병 검진받는 숫자를 규제하여 갈등이 있었고 1991년 1월 대학병원의 검진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고 김봉환님의 직업병 판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어 공장 정문 앞에 시신을 두고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부검 소견으로 직업병 개연성을 인정하기로 하면서 137일 만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원진레이온 전 노동자와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직업병 인정기준을 바꾸었고 직업병 판정이 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1993년 7월 김영삼 정부는 원진레이온 공장을 폐업하였고 노동조합

은 직업병 대책과 고용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원진 직업병 전문병원 설립과 직업병 진단을 위한 정기 검진 실시, 민사배상기금 마련과 재단법인 설립 등을 요구하면서 명동성당에서 농성 등으로 폐업 반대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폐업을 되돌리지는 못하고 재취업 알선과 직업병 진단을 위한 정기 검진과 재단 설립이 관철되어 회사를 법정관리 하던 산업은행이 원진직업병관리재단(원진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원진재단에서 병원설립기금 110억 원과 추가 보상기금 230억 원을 내놓았고 그 재단을 원진 직업병 대책위와 원진 산업재해자 협의회(원산협)에 넘겨주어 독자적으로 원진재단(초대 이사장 박현서, 2대 이사장 양길승 2014년 이후 현재까지)이 원진 환자들의 복지와 재활을 위한 활동, 위로금 지급 등의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업병 판정을 받고도 환자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산협은 1997년 6월 원진 환자를 위해 전문병원은 아니지만 원진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저는 상업적 의료에 집중하는 의료기관보다 공익적 의료기관이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 진료와 관리에 임할 때 신뢰받을 수 있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하여 원산협에 의료협동조합의 성격을 갖는 의원을 개원할 것을 권유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원진의원은 1차 의료기관이지만 원진 직업병 환자에게 필요한 건강교육과 예방 활동을 안내하며 주치의로서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재활치료를 제공했고, 이를 통해 일반 의료기관과는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협동조합은 아니지만 원진의원 운영을 원산협이 직접 나서서 함으

로써 환자가 필요로 하는 진료를 실천하는 의원이 된 것입니다.

전문치료기관에 대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원진재단은 1999년 6월 원진 환자분들이 많이 사는 구리시에 원진녹색병원(원장 김록호)과 노동환경 건강연구소(소장 백도명)와 원진복지관으로 원진종합센터를 만들어 문을 열었습니다. 1988년 시작한 원진레이온 직업병과의 싸움이 한 단락을 맺고 전국의 노동자를 상대로 안전보건 문제를 연구하고 상담하여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한 산업보건종합센터가 작지만,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 9월 면목동에 300병상 병원으로 종합병원을 지어 녹색병원을 개원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4) 시민운동

굳이 제가 함께한 활동을 시민운동으로 따로 쓸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보면 제가 인의협 의 임원을 그만두고 후배들에게 맡긴 것이 1991년이고 노동과 건강연구회의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이 1992년입니다. 저는 의료전문인으로 짧은 기간 의료에 쏟아지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였지만, 의료운동이나 노동안전보건운동을 준비하고 경력을 쌓아가는 전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손이 미치지 못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곳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전문가들에게 일을 넘겨야 한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의료문제나 노동자 건강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제 전

반을 특히 권력의 문제를 다루는 시민운동으로 옮겨 갔습니다. 6월 민주 항쟁 이후 부문 운동과 전문분야로 운동이 확산되고 민주 노동운동이 크게 자리 잡으면서 민중운동과 사뭇 결이 다른 시민운동이 활동을 활발히 하던 때여서 민중운동과 함께 가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994년 참여연대 창립 때 시민위원장으로 참여하여 1996년 집행위원장, 1999년 운영위원장을 맡아 2003년 그만둘 때까지 참여연대의 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6월 항쟁 9주년 직전에 10주년을 맞을 준비를 하자는 모임인 6월항쟁10주년사업회 준비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1997년 10주년이 지난 뒤 6월 사랑방(초대 대표 김중배, 2대 대표 오충일)으로 그 후 6월 민주포럼(3대 대표 윤준하, 4대 대표 양길승)으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한 일은 그전의 다른 활동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같이 한 활동가들이나 후배들이 다 같이 하는 것이어서 제가 소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거나 특별히 기억하는 것들을 다시 연표식으로 적어 봅니다.

- 1987년 “농촌 의료문제의 실태와 개선 방향” 농어촌사회연구소 회보 3호
- 1991년 8월 화성 폐기물사업소 환경피해 조정위원회 참여
- 1992년 2월~6월 “의사가 진단한 한국 의료의 문제점” 월간 조선 2월호~6월호
- 1992년 7월 산업보건연구원 직업병심의위원
- 1993년 10월 “산업보건협회 30년사” 재야의 산업보건 활동 집필

- 1993년 10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촉구 토론회 발표
- 1994년 12월 부정방지대책위원회(정부기구) 발행 “의료 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집필
- 1996년 2월 대우조선 유기용제 취급 노동자 건강장해조사
- 1996년 6월 택시노동자 환경평가와 건강장해 보고서
- 1997년 한약 분쟁 조정을 위한 한약 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참여
- 2001년 기독교방송 파업 때 CBS를 사랑하는 사람들 대표

4. 녹색병원

2003년 9월 녹색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었던 옛 서울기독병원이 부도가 나서 경매에 올라있는 것을 원진직업병관리 재단(원진재단)이 낙찰을 받아 2년간 준비하여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어떤 병원을 만들 것인가를 두고 2년간 원진재단과 인의협 의사들이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공부하고 토론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녹색병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공익병원으로 “따뜻한 병원, 편안한 병원, 돌보는 병원”을 지향합니다. 질병으로 어둡고 차가운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곳이 되고 장애와 편견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편안한 곳이 되도록 돌보려 합니다. 치료(cure)가 아니라 돌보는(care)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은 의료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치료만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병원, 편안한

병원, 돌보는 병원은 따뜻한 사회, 편안한 사회, 돌보는 사회를 만들려는 시작입니다.

녹색병원 1층에는 개원 전에 전 직원이 함께한 MT(Membership Training)에서 채택한 병원 현장이 붙어있습니다.

1.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과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연구, 교육 및 지역주민 건강 증진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2. 우리는 환자가 올바른 치료를 위한 주체임을 인정하고 환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3. 우리는 우리가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와 내용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한 일터를 만든다.
4. 우리는 교육과 봉사를 통해 우리 스스로 성숙한 시민이 되어, 노약자와 장애인, 모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희망을 공유한다.
5. 우리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병원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 현장에 부응하기 위해서 녹색병원은 지역건강센터를 두고 사회복지사와 가정방문간호사가 팀을 이루어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인권 침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인권치유센터를 운영하여 공권력 피해자, 소수자 차별 피해자,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노인학대 피해자, 고문 피해자와 인권운동 활동가를 지원하고 있고 농성과 단식 등으로 의료가 필요한 사

람들을 치료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색병원의 이러한 활동은 병원과 직원들의 모금과 지원만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건강 방파제 기금, 장애인의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랑의 고리 기금,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파랑새기금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녹색병원은 서울시가 정한 산재, 직업병, 인권 침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안전망병원으로 지정되어 인권 침해 피해자는 물론 산재나 직업병으로 치료가 필요하나 산재보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 사내 하청 노동자와 알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녹색병원의 이러한 노력과 꿈은 의료의 공공성을 실천하여 상업화하는 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평가하듯 녹색병원 입구 바닥에는 서울시가 2016년 설치한 서울 인권현장 표지석이 깔려있고 “녹색병원 이곳은 원진레이온 산재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일궈낸 직업병 전문의료기관이다”라 쓰여 있습니다.

5. 마치며

1960년대 학생운동에서 시작해서 의료운동, 노동자 건강권 운동, 시민운동을 나뉘어 오랫동안 같이 해 왔습니다. 이제는 70대가 되어 젊은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으면서 그들의 활동을 돕는 일을 하는 것도 벅차지 않나 생각합니다. 80을 훌쩍 넘기고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에 비하면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야에서 또 변화가 무쌍한 부문에서 과분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일찍이 과분한 관심과 보상을 받았습니다. 종합병원 병원장에 이사장을 맡았고 1994년에는 서울변호사회가 주는 시민인권상을 받았고 신문에 시론을 쓰기도 하고 라디오방송으로 칼럼을 오랫동안 내보기도 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정부로부터 석탑산업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해 온 그 운동의 성과는 초라하다 못해 부끄럽습니다. 15살 소년의 죽음으로 뛰어난 노동자 건강권 운동에서는 여전히 해마다 2천 명 이상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고 희생자의 나이도 불과 스무 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강권의 기본이라 할 장시간 노동 금지는 논의만 무성하지 아직도 개선은커녕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의료운동도 의료계의 직능이익에 간혀 의료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실현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회의 보수화에 밀리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의료기술과 설비는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의료의 불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나눔의 의료와 복지는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시민들이 일으킨 촛불이 광장을 넘어 촛불 정부를 세웠다고 하지만 지금 광장에는 극단적인 혐오와 배제의 목소리가 난무하고 이 시대의 어려운 사람들은 고공농성으로 밀려나서도 해결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반성입니다. 민주화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것은 우리의 반성입니다. 민주화의 대상에서 '나'를 빼고 '남'만을 올려놓아 우리 스스로 민주화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민주화가 여성에서 막히고, 가정에서 막히고 직장에서 막혀 버린 것은 우리가 '우리'에서 나를 빼놓았기 때문이 아닐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민주화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 박힌 비민주에 '우리'가 초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운동을 떠나지 않고 그 긴 세월 동안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50년 전과 비교하면 분명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시 그 세월을 반복하지 않아도 될 만큼은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꿈으로 다시 현실의 문을 열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을 젊은 사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후기

제가 한 일의 성격을 보면 일방적으로 군림해온 제도권에 저항하여 운동으로 재야의 목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의 일부분이 되게 하는 것이어서 진정한 전문가 운동 이전에 사회 요구에 일차적으로 '전문가적'으로 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재야에서 제도권으로 진입이 보다 쉬워지고 일상화된 지금에서 본다면 너무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못하고 터무니없다고 인식되던 때의 과도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지금은 보다 치열하게 시대의 과제를 연구하고 실천함으로써 다소 영성하기까지 했던 구약과 적폐와의 싸움이 아니라 훨씬 정교하고 세련된 보수와의 싸움을 해야 할 때이고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양길승 드림. 